

100년 후에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중 클래식 음악은 어려서부터 늘 함께 했다. 음악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열심에 밀려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클래식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나름대로 참 좋아하게 된 곡들이 여러 곡 된다. 그런데 지난 주 갑자기 앞으로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명기라고 이야기 하던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악기들이 노화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몇 대 후손들에게 관심을 줄 만한 음악과 악기들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자 악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서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그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기에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가서는 그 세대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있지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100년 후에 클래식 음악은 점점 없어지든지 아니면 관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지금 이 세대에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가 없고 유명하다고 하는 연주자들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은 어떻게 될까? 100년 후에 기독교는 어떠한 모양으로 남아 있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한 목사와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성경은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미래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민 교회를 20년 정도 본다. 그 때가 되면 내가 80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 때에도 비전을 내세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더 이상 힘이 없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의 상태라고 한다면 많은 이민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들도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세대가 끊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교회에는 7-80대가 가장 젊은이들 될 것이고 가장 젊은이들이 의자를 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성경이 없어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어두운 상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100년 뒤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습은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걱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20년을 내다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1장 22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버티며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다가 보면 20년의 준비와 100년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다.